

산학리뷰

2004년 6월 / 제15권 제6호 (통권 158호)



CONTENTS

2004. **6**

- 2 • 산학칼럼 / 중국경제의 향후 발전 전망 7 • 경영 · 기술정보 / 알루미늄의 새로운 브레이징 기술 12 • 대덕단상 / 2004 대구국제오페라축제
 16 • 용역보고 / 금융환경 변화와 지역금융시스템 22 • 제169차 월례세미나 / 세계 속의 한국 : 도전(挑戰)과 기회(機會)
 25 • 만나봅시다 / 안세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 31 • 연구원 소식 / 회원동정 34 • 신적도서목록 35 • 연구원 소개 및 회원가입 안내





중국경제의 향후 발전 전망

신주식 |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I. 서론

이제까지 전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중국경제의 향후 발전 전망에 대해 자신들의 견해를 밝혀 왔다. 어떤 학자들은 중국경제가 멀지 않는 장래에 몰락할 것이라는 견해를 표시하는가 하면 어떤 학자들은 중국경제가 고속성장의 가도를 질주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중국경제가 앞으로도 고속성장을 지속할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 전세계 어느 학자도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각국의 경제가 글로벌화의 영향권 속으로 편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부의 각종 환경요인의 변화방향을 예측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경제도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소위 入世(입세 : 중국경제의 세계경제체제 속으로의 편입을 의미)를 하였기에 중국경제의 향후 발전 전망을 예측하는 것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필자가 기업계 인사들을 상대로 강의를 할 때마다 많은 기업인들이 중국에 투자하려 하는데 중국경제가 몰락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자주 질문해 왔기에 필자가 과거 20여 년 간 중국 또는 중국관련국가에서 주재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일부 자료를 참고하여 나름대로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II. 중국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장애요인들

1. 심각한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장애요인들

여기에 속하는 요인들은 현재 상황이 심각하여 향후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요인들인데 그 중에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문제, 원유 등 자원 또는 원부자재 부족, 식량부족 및 빈부격차 확대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1)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문제

서울대 정용록 교수의 지적에 의하면 급속히 성장해온 중국 금융부문의 이면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막대한 부실채권, 낮은 자본금, 부적절한 위험관리 및 조직의 비효율성 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2년 말 현재 중국 전체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비율은 총 대출금의 19.8%, 4대 국유 상업은행의 부실자산 비율

중국경제가 앞으로도 고속성장을 지속할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 전세계 어느 학자도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외부의 각종 환경요인의 변화방향을 예측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경제는 내국인 저축률의 안정세 유지, 매년 500억불을 초과하는 외국기업의 대규모 투자 및 매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는 해외수출이라는 3대 견인차가 경제성장을 지속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앞으로도 위에서 언급한 각종 경제발전 저해 요인들이 야기시키는 각종 악영향이 밖으로 분출되어 폭발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중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촉진 요인이 그 힘을 계속 발휘하는 한, 중국경제 성장의 장애요인의 활동은 잠정적으로 중단될 수 밖에 없어 중국경제는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은 26.1%로 공식 발표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은행 내부사정에 밝은 일부 인사들의 견해에 따르면 각 은행의 전체 채권 중에서 부실채권은 40~50% 정도에 달할 것으로 주장하기도 한다. 어쨌든 중국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심각한 수준인 것만은 틀림없다 하겠다. 골드만 삭스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중국 전체 은행들의 부실채권 규모는 약 6천억 달러로 총 대출액의 40%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이들 은행의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려면 약 3,73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부실채권 문제의 경우 외부압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일부 소형 금융기관들의 유동성과 지급불능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금융기관의 신용문제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금융기관 부실채권 문제가 야기할 수 있는 외환위기의 가능성은 최근 발생한 중국정부의 긴축정책 채택 결정과정에서 보듯 기존 부실채권 문제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신규 부실채권까지 가세할 경우 다분히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2004년 1/4분기에 비록 84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내긴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건실한 무역흑자 구조, 계속 흑자행진을 하고 있는 자본수지 구조, 2002년 3월 말 현재 누계액 4,053억 달러 수준에 도달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 2003년 말 기준 4,033억 달러로 증가, 일본에 이어 세계 제2위가 된 외환보유고, 중장기 외채비율이 70.3%인 1,195.3억 달러로 단기외채 29.7%보다 훨씬 높은 현상, 높은 국

내 저축율, 중국 금융체제의 폐쇄성과 중국경제의 반(半)개방성 등의 보호막이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정부의 정책집행 과정에서의 오류나 실수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유 등 자원부족에 따른 장애요인

Standard Chartere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6~2020년 기간 중 중국의 원유수요는 매년 3.8%씩 증가하며 원유소비량은 1996년 하루 3.5백만 배럴에서 2020년 하루 8.8백만 배럴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가솔린, 등유, 디젤유의 연간소비가 5%정도씩 늘어나 2005년에 이르러 수요량은 1.36~1.38억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993년 이래 중국은 원유수출국에서 순 수입국으로 전환되었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중국의 석유 순수입량은 1996년 13.485Mt에서 1999년 28.58Mt, 2000년 69.6Mt로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90년대 이후 10년 간 중국의 원유소비량은 매년 5.77%의 속도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원유공급 증가율은 1.67%에 그쳐 소비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석유대외의존도는 1996년 11%에서 최근 약 30%까지 증가하였다. 국제 에너지기구(IEA)는 중국의 석유수입 의존도가 현재의 30% 수준에서 오는 2030년에는 84%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학자가 예측하는 중국의 석유수급 전망에 따르면 2010년 수입의존도가

43%, 2020년 55%, 2050년 88%로 예측하고 있다. 최근 중국경기 과열로 발생한 철강, 시멘트, 철근 및 기타 금속제품 등 각종 원자재 파동을 보면 원유를 포함한 각종 원부자재 등 자원대란의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부자재를 포함 자원대란이 발생할 경우, 중국경제의 고속성장에도 급브레이크가 걸려 장기간의 경기침체 현상과 성장둔화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3) 식량문제

중국의 연대별 식량공급 상황을 보면 1960년대에 부족현상이 나타났고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초기까지 부족현상이 재발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부족현상이 나타났으며 2000년도에 들어와서도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특히 주목할 것은 1999년도에는 곡물 생산량이 3억9천만 톤이었으나 2001년에는 3억4천만 톤으로 격감하였고 2003년에는 3억2천2백만 톤까지 감소하였다.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중심의 발표에 따르면 2004년도 1/4분기에 밀, 쌀, 옥수수 가격이 각각 20%, 18%, 10% 상승하였고 2/4분기와 3/4분기에도 추가로 20% 정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한 2004년 3월 소매 식품가격도 전년 동기대비 7.9% 상승하였다고 한다. 중국의 곡물가격 파동이 발생된다는 생산량 급감이 야기한 바가 크다. 곡물 생산량이 줄어든 원인을 보면 경작지가 황폐화되면서 경작면적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원인이다. 1990년대 식부면적(식량작물을 심는 면적)이 70%였으나 2002년도에는 67.2%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곡물생산량 급감의 두 번째 원인은 경작농지의 무분별한 전용이다. 추정치이기도 하지만 중국 지방정부가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한 공단이 전체 공단의 3분의2 정도 되고 그 면적이 대략 20억 평

에 달한다고 한다. 대부분의 공단부지가 곡물 경작지를 전용한 것임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세 번째 원인은 농민들의 도시로의 이농현상 또는 탈농현상이 야기한 것이고 네 번째 원인은 WTO 가입으로 인한 농업과 농민에 대한 지원금 또는 보조금의 감소 또는 폐지가 초래한 결과이다. 2001년 중국의 WTO가입으로 인해 향후 2006년까지 중국 농산물 시장의 개방이 폭넓게 진행되면서 값싼 미국산, 캐나다산, 호주산, 아르헨티나산 농산물이 대량으로 중국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다. 이 경우 중국의 농산물은 가격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농민들이 도시로 탈출할 때 중국 농산물 생산은 더욱 격감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중국의 농산물 수입이 불가피해지고 매년 평균 수입량이 5천만 톤 이상이 되면 세계 곡물시장의 재고가 3년 내에 바닥이 나면서 곡물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중국의 무역역조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 중국경제의 고속성장이 멈출 가능성이 있다.

(4) 빈부격차 문제

중국사회에서의 빈부격차 문제는 지역간 빈부격차와 계층간 빈부격차가 혼합되어 야기된 문제로 볼 수 있다. 중국의 저명한 학자인 왕명웨이(王夢奎), 리산통(李善同) 교수가 공동 저술한 "중국지구 사회경제발전 불평형문제 연구"라는 책에서 언급한 '1997년도 세계 주요국가 인당소득 최고치와 최저치의 격차배수'의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11.63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인도네시아가 5.3, 인도가 3.26이었다. 선진국들은 대개 1.40~2.50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다. 중국중앙정책 연구실의 리신신(李欣欣) 박사는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한 1979년 이후 중국의 빈부격차가 확대된 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아홉 가지 사항을 꼽고 있다. 첫째, 국민총생산액 중 개인수입 부분의 증대 둘째, 임금이의

의 수입이 개인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점 셋째, 도시주민간의 소득격차 확대 넷째, 농민간의 소득격차 확대 다섯째, 지역간 소득격차의 확대 여섯째, 소유제 유형간의 소득격차의 확대 일곱째, 산업별 종사자들간의 소득격차 확대 여덟째, 산업 내 또는 기업 내 공원들간의 소득격차 확대 아홉째, 재직 중인 공원과 퇴직/이직 중인 공원간의 소득격차의 확대 등이 그것이다. 극심한 빈부격차 문제는 어느 문제보다도 심각한 문제이다. 중국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정책과 수단을 동원해 보지만 그 효과가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필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정부가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며 개혁의 메스를 들이대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과거 20년 가까이 줄기차게 추진해온 개혁/개방 정책의 본질을 훼손하고 중국발전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놓을 수 있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극심한 빈부격차 문제는 중국적으로는 사회불안을 야기하게 되어 중국성장을 가로막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비교적 덜 심각한 장애요인들

여기에 속하는 요인들에는 부정·부패현상, 중국경제 성장 잠재력의 저하, 저효율 경제구조 및 환경오염 문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1) 심각한 비리·부정·부패 문제

관영 신화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중국호텔 고급양주 70% 이상이 가짜”라고 한다. 중국 공상총국(工商總局)이 지난달 베이징(北京)·선양(瀋陽)·정저우(鄭州)·청두(成都) 등 4개 주요 도시의 호텔 50여 곳을 조사한 결과, 판매 중인 고급술의 진품률이 4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고급 백주(白酒)의 진품률은

47.4%, 고급 양주의 진품률은 겨우 28.6%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현상도 심각한 수준에 도달함으로써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중국정부가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국가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고 준법의식의 기초를 허물어 버릴 가능성이 있다.

(2) 성장 잠재력의 저하

중국의 과거 경제 성장률은 1992년부터 10% 내지는 14%대의 두 자리 숫자 성장을 4년 간 유지하다가 1996년부터 한자리 숫자로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이런 상태가 2001년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런 한자리 숫자 성장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서서히 그것도 점진적으로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경제의 성장이 1% 하락하게 되면 200~400만 명의 신규 실업인구가 생긴다는 통계가 나타내듯이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게 되면 중국의 실업문제가 심각해져 사회동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3) 저효율 경제구조와 민족기업(경제적 국수주의 관점에서의 국유기업)의 고전

중국제품의 생산원가 경쟁력이 국제수준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기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기업유지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중국 국유기업의 3분의 2가 적자상태라 한다. 중국정부도 이런 저효율 구조를 제거하기 위해 공산당으로부터 정부와 인민대표회의(한국의 국회에 해당)의 고유권한을 분리하고 행정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서방의 3권분립과 유사한 정치개혁을 특정지역에 시범케이스로 곧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시장 전반에 걸친 공급과잉 현상이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존재함으로써 쉽게 해결되어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4) 심각한 공해문제

공업 및 기업활동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오염은 해당

기업들에게 오염방지 시설확보 및 그에 필요한 자금확보를 명령함으로써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시화 관련 오염과 생활관련 오염분야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중국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예산부족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III. 결론

위에서 언급한 대로 중국경제는 많은 내부 장애요인과 성장 후유증으로 인해 힘든 국면을 맞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경제는 내국인 저축률의 안정세 유지, 매년 500억불을 초과하는 외국기업의 대규모 투자 및 매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는 해외수출이라는 3대 견인차가 경제성장을 지속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촉진요인의 주도적 역할 속에서 장애요인들은 외부로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저 잠복하고 있을 뿐이다. 마치 인간의 몸 속에 강한 면역체계 또는 항체가 생겨 각종 병원균으로 인한 발병을 억제하고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앞으로도 위에서 언급한 각종 경제발전 저해 요인들이 야기시키는 각종 악영향이 밖으로 분출되어 폭발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중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촉진요인 즉, 항체가 그 힘을 계속 발휘하는 한, 중국경제 성장의 장애요인인 병원균의 활동은 잠정적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어 중국경제는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경제 위기론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그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으나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가랑비에 옷이 젖어 옷이 흠뻑 젖는 상태가 아닌 한 옷으로서의 기능은 지속되어 갈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장애요인들이 야기하는 각종 부작용과 후유증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는 한 이런 위험요소는 극복이 가능해 진다. 현재의 중국정부가 취하고 있는 울

바른 정책선택과 높은 수준의 정책효율을 고려할 때 가까운 기간 내에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중국 경제가 수많은 장애요인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온 이유는 이들 장애요인이 경제성장을 간접적으로 위협하는 부차적(副次的) 위협조건일 뿐,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핵심 위협조건이 아닌 반면 중국 경제를 견인하는 3가지 견인차는 중국 경제의 성장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핵심 성장촉진 요인이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들은 중국경제가 2008년 북경 올림픽 때까지는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9년 이후는 경제성장 촉진요인과 장애요인들 간의 파워게임, 즉, 항체와 병원균의 싸움이 어떻게 귀결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면 된다. 이런 3대 견인차가 견재하는 한, 당분간은 중국경제는 어려운 국면에 부딪칠 때마다 무난히 그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



알루미늄의 새로운 브레이징 기술

김 환 태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연구위원

1. 기술의 개요

■ 자동차 열교환기의 제조에 많이 사용되는 알루미늄의 브레이징 기술은 자동차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 크게 변화했다. 열교환기를 브레이징할 때의 가열 분위기는 대기 분위기에서 시작하여 진공 또는 불활성가스 그리고 질소가스로 변화했으며 현재는 질소가스 분위기에 소량의 불화물 플럭스를 사용하는 Nocolok 브레이징이 주류를 이룬다.

■ 최근 들어 저온에서의 브레이징 또는 고속의 브레이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Oak Nippon Co.를 포함한 몇몇 회사에서 고속 브레이징에 대해 흥미를 갖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2. 기술의 변천

브레이징 기술의 변천

○ 알루미늄의 브레이징은 1960년대부터 공업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염화계의 플럭스를 대량으로 사용하고 대기 중에서 브레이징 가열(약 600℃)하는 방법이었다. 그 후 대기의 이슬점을 조정하는 방법과 분위기를 불활성 가스 또는 진공으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종류가 고안되었다.

○ 1990년대부터 실용화된 Nocolok 브레이징(NB)은 Alcan사가 개발한 기술로서 초기설비 비용과 운전비용 및 환경에서 우수하여 현재에도 브레이징 접합의 주류를 이룬다.

○ Nocolok 브레이징 공법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갖는다.

- Nocolok 브레이징에 사용되는 노의 길이가 20~40m로 매우 길어서 필연적으로 가열시간이 길게 되기 때문에 재료에 열영향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또한 컨베이어 가동방식으로 가동됨에 따라 일정한 크기의 열교환기를 대량으로 생산하는데 적합하지만 크기가 다른 열교환기를 동시에 유동할 수 없는 등 조업에 있어 융통성에 문제가 있다.

-분위기의 저로점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질소가스의 사용량이 많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 Nocolok 브레이징 공법의 이러한 문제를 줄이고 개량을 시도한 끝에 Oak Nippon Co. 등에서 펄스백(PULSVEC) 브레이징 기술을 개발하였다.

펄스 토치 브레이징

○ 작은 부품에 사용하는 토치 브레이징은 화염을 사용하기 때문에 온도를 정확하게 관리하기 어렵고 연속적으로 가열하여 접합부가 과열되면 오버 비드가 생기고 재료의 입계용융을 일으키게 된다.

○ 토치 브레이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정된 토치 버너를 on-off 시키는 브레이징법 장치를 고안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온도구배의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해석하여 토치 브레이징에서 펄스로 가열하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 토치 펄스로 가열하는 브레이징 방법을 쇄불이 마개의 브레이징 접합에 응용하였다. 이때 작업자의 기술보다도 기계적인 방법으로 펄스를 정확하게 제어하고 화염의 가열을 전 자동으로 하였으며 배관부품의 브레이징에도 실용화하였다.

○ 이와 같은 펄스 토치 브레이징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PULSVEC 브레이징 기술을 개발하였다.

새로운 브레이징법 PULSVEC의 개요

○ 새로운 브레이징 방법은 앞에서 설명한 자동 펄스 브레이징을 고안할 때 사용한 방법을 기본으로 하여 열교환기의 코어를 브레이징 하는데 응용하였다.

○ 알루미늄 부품은 열용량이 작은 부분과 큰 부분이 혼합된 구조로서 이를 가열하면 필연적으로 온도구배가 생긴다. 이 부품을 단시간에 급속가열하면 열용량이 작은 부분과 큰 부분간의 온도상승에 차이(온도구배)가 발생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브레이징재가 4045(Al-10Si)인 경우 브레이징재는 577℃에서 용융을 개시하여 590℃에서 용융이 종료된다.

○ 알루미늄 부품을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상승시켜 열용량이 작은 부분과 큰 부분의 온도구배 차이를 작게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특히 열교환기의 브레이징은 많은 접합 점을 동시에 접합시켜야 하므로 브레이징 온도를 유지한 상태로 브레이징 노속을 서서히 통과시켜 전체를 균일하게 가열한다.

○ 새로운 PULSVEC은 열교환기를 복사열로 가열하는 대신에 다수의 무 화염 토치(flameless torch)를 주기적(pulse)으로 가열하는데 별도의 버너와 전기로 가열한 질소가스를 분출시켜 열교환기 몸체를 가열한다. 이 기술의 핵심은 저로 점(-40℃ 이하)으로 유지된 실내(로)중에서 열교환기 몸체를 주기적(pulse)으로 가열하는데 있다.

○ 새로운 PULSVEC 기술은 종래의 기술에 비해 브레이징 시간이 1/2 이하이고 질소사용량도 1/2 이하로서 브레이징 효율이 매우 좋은 특징을 갖는다.

새로운 브레이징의 설비 개발

○ PULSVEC 브레이징 장치는 건조실 ⇒ 예열실 ⇒ 브레이징실 ⇒ 냉각실의 4가지로 구성된다. 종래에는 플럭스의 건조를 포함하여 브레이징 시간이 50~70분이 소요되었으나 새로운 브레이징에서는 각 실의 체류시간이 5~10분이고 전체적으로 25~50분 범위에서 브레이징 작업이 완료된다.

○ 건조실

플럭스의 도포는 정전기 도장을 하는 건식과 물에 플럭스를 녹여서 도장하는 습식이 있다. 건식법은 플럭스 양을 엄밀하게 관리할 수 없으나 습식법은 농도를 관리하여 플럭스의 사용량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습식법은 수분의 건조와 증발에 시간이 걸리는 결점이 있다.

- PULSVEC 브레이징의 건조실은 가열건조 공기를 순간적으로 교체하여 단시간에 건조할 수 있으며 특히 튜브 내부의 건조도 용이하다. 또한 200℃의 건조한 공기를 다수의 무 화염 토치로 건조실에 가득 채운 후 압력차로 순간적으로 공기를 교체함에 따라 다수의 열교환기를 약 5분에 걸쳐 건조할 수 있다.

- 종래의 컨베이어 방식에서는 건조실과 브레이징 작업 라인간이 1m이상 떨어져서 라인의 길이가 길었으나, PULSVEC 브레이징의 경우는 건조실을 포함하여 연속으로 작업할 수 있게 되었다.

○ 예열실, 브레이징실

- 질소 가스를 고온으로 가열하여 실내 양쪽 벽의 토치로부터 열교환기에 분사할 때 자동제어를 하여 on-off 시키고 펄스를 주어 가열함으로써 열교환기 접합부위간이 온도구배를 작게 하고 토치 브레이징과 같은 고속가열이 가능하다.

- 예열실과 브레이징실의 저로 점(-40℃이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열교환기의 종류에 따라 예열실의 펄스 제어를 생략할 수 있다.

- 브레이징실의 가스 온도를 570~630℃로 관리하는 것이 PULSVEC 브레이징 기술의 핵심이다.

○ 냉각실 : 일반적으로 질소 가스나 공기에 의해 300~350℃까지 10분 이내로 냉각시킨다. 장래 5분 닥트에서 브레이징 하면 건조와 동일한 원리로 순간적으로 공기를 바꿔 넣어서 냉각효과를 높이고 록 설계할 수 있다.

열교환기 양산용 브레이징로의 개요

○ 열교환기 양산용 1호기는 건조실 1, 건조실 2, 예열실, 브레이징실, 냉각실 등 5실로 구성되고 각 실의 가스분출 토치는 양측 벽에 7열 5단으로 배치되었다.

○ 종래의 컨베이어로와 새로운 PULSVEC 1호기의 항목별 비교는 다음과 같다. (종래의 컨베이어로 ⇔ PULSVEC 1호기)

- 장치의 길이 : 30m ⇔ 11m

- 운송방식 : 컨베이어 방식(연속) ⇔ 닥트 방식(순송)

- 고 순도 질소가스 사용량 : 25m³/h ⇔ 10m³/h (조업 준비 시)

55m³/h ⇔ 30m³/h (조업 시, 60개/h)

○ 종래의 컨베이어로와 비교한 PULSVEC 1호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건조실을 포함한 노의 전체 길이가 약 1/3로 끝난다.

- 질소가스의 사용량이 반 이하이다.

- 브레이징 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으며 1/2의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 설비비는 양산생산이 되면 종래와 거의 동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의 브레이징

○ 자동차용 열교환기의 양산 확대에 맞추어 발전한 알루미늄 브레이징 기술은 70년대에는 대기분 위기의 오픈로, 80년대에는 진공로, 90년대에는 질소 분위기의 컨베이어로가 브레이징의 주류를 이루었으며 21세기에는 PULSVEC 브레이징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측된다.

○ 가열방식은 종전에는 복사(radation)가 주를 이루었으나 이것을 개선하여 금번의 새로운 브레이징에서는 펄스 컨벡션(pulse convection)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21세기에는 급속가열이 가능한 장치의 실용화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 Oak Nippon Co.를 포함한 연구진은 알루미늄 브레이징의 고속화와 저온화를 위한 새로운 PULSVEC 브레이징 기술을 개발하여 자동차용 열교환기의 상품화 제작에 성공하였다.

■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다수의 브레이징로가 가동되는데 이번에 개발한 PULSVEC 브레이징 기술과 생산라인이 크게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문가제언

□ 비부식성 플럭스법(Non-corrosive flux brazing)인 NB(Nocolok 브레이징)는 플럭스 잔사에 의한 재료의 부식이 없고 플럭스 잔사를 제거할 필요가 없고 세척공정 없이 도장처리가 없으며 사용되는 질소가스가 그다지 고 순도가 필요하지 않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라디에이터, 히터, 콘덴서 등 자동차에 사용되는 열교환기의 브레이징의 1/3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브레이징 기술이다. 그런데 본고에서 설명한 새로운 PULSVEC 브레이징 기술은 종전의 기술에 비해 건조실을 포함한 노의 전체 길이가 약 1/3이고 질소가스의 사용량이 반 이하이며 브레이징 시간을 상당히 단축할(1/2의 가능성도 있음)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자동차용 열교환기의 알루미늄 브레이징에 활발히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나라는 자동차 생산에서 세계 선두 그룹을 달리고 있으며 국산차의 내수와 대외수출에서 외제차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어서 품질의 고급화가 절실하다. 열교환기의 브레이징 기술은 열교환기 제품의 수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술로서 납 재의 저용점화, 브레이징 소재의 다양화, 고기능화 등 많은 기술의 발전이 예상되는데, 현재 국내 열교환기의 브레이징 제작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은 연구의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선진 경쟁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상태로 국내 열교환기의 브레이징 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 뒷받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료출처 : <http://reseat.re.kr>〉



2004 대구국제오페라축제



남석모 | 대구오페라하우스 공연기획과장

문화공간이 부족했던 대구에 작년 8월 대구오페라하우스가 탄생하였다.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지역 연고기업인 제일모직주식회사가 기업메세나운동 실천 차원에서 대구시 북구 칠성동 옛 제일모직공장 부지에 건립하여 대구시에 무상으로 기증함으로써 성사된 문화공간으로 서울 예술의 전당에 이어 국내 두 번째이자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만들어진 오페라 전용 극장이다. 제일모직(주) 임직원 주주들에게 진정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대구오페라하우스의 개관으로 자연스럽게 제기된 것이 국제오페라축제이다. 제대로 된 오페라 전용 공간이 만들어졌으므로 그 동안 축적된 지역의 오페라 제작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구오페라하우스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축제로 개발하여 이를 통해 예술도시로서 대구를 세계에 알리자는 것이었다.

작년에 개최된 대구오페라축제는 올해 10월에 개최될 대구국제오페라축제를 위한 시범적 행사로서 국립오페라단, 서울시오페라단, 대구시립오페라단 등 국내 3대 국공립오페라단과 대구지역의 대표적 민간오페라단인 영남오페라단이 참가하여 공연마다 만원사례를 이루는 등 대성황을 이루었다. 성공요인으로는 오페라하우스라는 특정 공간의 개관에 대한 호기심이 일부 상승효과를 가져왔지만 이보다는 그 동안 고급 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투영된 결과라고 하겠다.

올해부터 개최될 대구국제오페라축제가 생성된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 1990년대부터 지방자치가 본격 시작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쟁적으로 지역 정체성 부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산물로 문화축제가 우후죽순처럼 늘었다. 부산의 국제영화제, 광주의 미술 비엔날레, 경주의 문화엑스포, 안동의 민속탈춤축제, 고양·안면도 꽃축제, 통영의 국제음악제 등의 축제가 그것이다. 대구에도 오래 전부터 달구벌축제, 섬유축제, 약령시축제 등 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다.

80년 초에 만들어진 달구벌축제는 초기에는 '용두방천 줄 땀기' 재현 등 전통민속 보존과 소싸움 대회 유치 등 시민위안축제로서 기능을 해 왔지만 지금은 존립마저 위태로운 형편이다. 달구벌축제가 문화전문축제로서 정체성을 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약령시축제와 섬유축제는 산업축제로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고 있고 미래지향적인 발전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도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산업축제와 문화전문축제가 꼭 필요하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그 동안 우리 나

올 10월,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대구국제오페라축제가 개최된다. 오페라는 인류가 가진 최고의 예술적 자산 중의 하나라고 들 한다. 오페라가 무대에 올려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공연 시 여러 분야의 예술이 결합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막전과 막후에서 정교하게 이를 진행하고 있다. 오페라의 발전은 관련 예술분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페라의 발전은 전체 예술의 발전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대구에서 국제오페라축제를 개최하는 모티브가 될 수 있고 그 중심에 대구오페라하우스가 있다고 하겠다.

라에 생겨난 축제들은 '그 나물에 그 밥' 식의 축제여서 지역의 특성과 문화적 환경과는 맞지 않는 행사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대구가 국제오페라축제를 개최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음악은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는 가장 보편적인 예술일 뿐 아니라 음악은 세계인의 공통 언어이기도 하다. 특히 오페라는 종합예술로서 음악, 무용, 문학, 미술을 바탕으로 성악과 합창, 오케스트라, 발레 등이 한데 어우러져 하모니를 이루어 빛어내는 극예술의 최고봉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오페라는 어렵다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다른 기악곡과는 달리 오페라는 스토리가 있어 마치 영화나 드라마를 보듯이 즐길 수 있다. 원어로 불려지더라도 한글자막이 제공되기 때문에 정말 이해하기 쉬우며 화려한 무대 장치, 무대 조명, 그리고 무대의상들은 굉장한 구경거리이다. 이러한 오페라 공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과 튼튼한 예술 기반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거기다 상당한 제작비용이 든다. 따라서 오페라 공연에는 넉넉한 재정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인적 인프라의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구도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여섯 개의 민간 오페라단이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세계 밖에 없는 국공립오페라단 중의 하나인 대구시립오페라단을 가지고 있다. 한국 제2의 도시인 부산에서 활동하는 오페라단이 세 개임을 볼 때 대구는 지방 도시 중에서 가장 오페라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반의 배후에는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영남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그리고 대신대학교 등 여섯 개 4년제 대학교에 개설된 음악관련학과에 의한 다양한 인력 공급이 되고 있다. 또 대구시가 설립한 일곱 개의 시립예술단체들뿐만 아니라 열 개의 공연장에서는 합창 성악 오케스트라 등 연주가 연중 끊이지 않는다. 이만하면 대구를 음악의 도시라고 불러도 손색없다고 판단되며 이런 바탕이 대구가 국제오페라축제의 개최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국제오페라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오페라 공연 제작자들은 최선을 다해 훌륭한 작품을 무대에 올려야 한다. 최근에는 공연예술도 시장에서 교환되는 상품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다른 공연물 또는 타 여가 산업과 관중유치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공연예술 작품이 관객들에게 시간과 돈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을 받지 못하면 다음 거래에서 시장원리에 의해 외면 당하게 돼 결국에는 예술시장에서 퇴출된다.

훌륭한 오페라 공연 제작 다음으로 중요한 인수는 관객개발(시장 개발)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오페라 공연이 다른 음악 장르에 비해 이해가 쉽고 볼만한 구경거리라는 것을 관객들이 알아야 오페라 공연장을 찾는다. 선진국에서도 전체 인구 중 오페라를 찾는 관객의 구성비가 그렇게 높지 않다.

따라서 오페라의 역사가 이들 국가에 비해 짧은 우리 나라에서 아무리 좋은 오페라 공연이 있다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이를 알지 못한다거나 이런 작품들이 즐길 만한 것으로 충분히 돈과 시간을 투자할 만한 여가 활동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는다면 그 공연이 관객들로 가득 찰 것이라는 기대는 어렵게 된다. 실제 오페라 공연에는 오지 않지만 오페라 잠재 관객들이 존재할 것이다. 이런 잠재적 관객들이 오페라 공연을 찾도록 하는 것이 공연마케팅분야의 핵심요소라고 하겠다.


오페라는 인류가 가진 최고의 예술적 자산 중의 하나라고들 한다. 오페라가 무대에 올려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공연 시 여러 분야의 예술이 결합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막전과 막후에서 정교하게 이를 진행하고 있다. 오페라의 발전은 관련 예술분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페라의 발전은 전체 예술의 발전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대구에서 국제오페라축제를 개최하는 모티브가 될 수 있고 그 중심에 대구오페라하우스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음악 저변이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할 뿐 아니라 특히 문화적 자부심이 강한 대구시민들이 앞장서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지도 모른다. 한 가지 부연하자면 대구에서 오페라축제를 개최하되 한국의 정서가 투영되고 나아가 대구의 정체성이 묻어나는 맛깔스런 오페라작품의 탄생을 이루어진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해 대구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작품으로 초연한 작품인 창작오페라 '목화'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었다 할 것이다. 즉 대구가 순수예술의 발전가능성을 보여주었고 나아가 대구가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심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구국제오페라축제는 대구 예술인들만의 잔치도 아니요, 대구오페라하우스만의 행사는 더욱 아니다. 대구시민들의 잔치 속에 열려야 한다. 결국 대구시민들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

대구의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힘

대구는 시민들의 사랑을 바탕으로 국제오페라축제가 거둬들일수록 대구가 더 창조적인 사회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부가가치가 높아져 대구의 발전을 한 층 더 앞당길 것을 기대해 본다.

대구시민들의 사랑을 바탕으로 국제오페라축제가 거둬들일수록 대구가 더 창조적인 사회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부가가치가 높아져 대구의 발전을 한 층 더 앞당길 것을 기대해 본다. 



용역명 : 지방분권화시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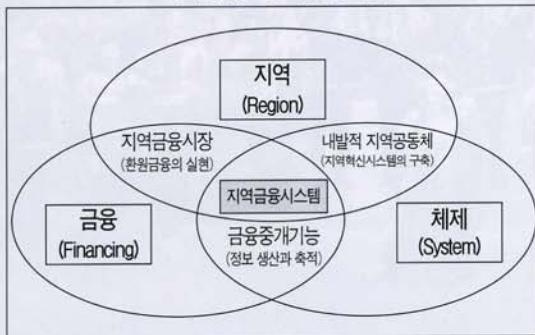
금융환경 변화와 지역금융시스템

편집자 주 : 본 원고는 지난해 대구은행과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용역 중 김영철 계명대학교 교수가 작성한 2장 『금융환경 변화와 지역금융시스템』을 정리·요약한 것입니다.

1. 지역금융시스템의 개념

지역금융시스템은 문자 그대로 '지역' 과 '금융', '체제' 의 개념이 융합된 것이다. '지역' 은 세계화 시대에 있어 성장축으로 재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 은 최근 실물경제의 순환을 압도하며 경제 활동에서 차지하는 지배적 속성을 강화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실물경제와는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는 독특한 영역이다. '체제' 는 그 자체로서 완결적이며 내발적 지속성을 가진 사회적 단위이다. 결국 지역금융시스템이란 지역이 독립적인 내발적 성장의 단위로 자리 잡기 위해서 지역금융이 실물경제와의 관련성을 맺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지역금융시스템의 구성



지역과 금융의 영역이 결합된 것이 지역금융시장이다. 정보기술이 발달하여 자금의 실시간 이동이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지역금융시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금융시장이 존재하게 되는 주요 요인으로는 지역 내 차입자에 대한 신용정보의 비대칭성, 지역의 산업구조 및 거래구조의 차이, 지역별 경제주체 성향의 차이,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의 차이 등이 지적된다. 지역금융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지역 단위에서 독자적인 환원 금융이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과 체제는 그 의미가 연결되어 내발적 지역공동체라는 개념을 형성한다. 세계화 시대에 지역은 국가의 하부 단위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지속적 발전의 역량을 갖추고 독자적인 정보 발신 기능을 가진 하나의 체제를 구성할 시대적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지식 기반경제사회의 경제 환경 변화는 거래비용의 축소를 위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간 집적화의 경제적 유인을 크게 강화시키고 있다. 지역전체가 상호 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혁신을 창출하는 학습지역을 형성하는 지역혁신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금융은 금융중개기능을 통하여 체제의 완결성을 보장한다.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 금융산업은 그 자체로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하나의 사적 기업의 성격을 가지지만 본질적으로는 금융중개기능을 수행하면서 실물경제의 순환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금융의 실물경제와의 관련성에 관한 논의 가운데 최근에 금융의 정보 생산 기능이 중시되고 있다. 금융기관은 자금 대출 시 차입자에게 투자사업에 대한 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이러한 과정의 반복으로 신용 정보를 생산하게 된다. 금융은 이러한 정보의 생산과 축적을 통해 투자 활동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게 되고 이를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지역금융시장과 내발적 지역공동체와 금융중개기능이 종합적으로 결합된 것이 지역금융시스템이다. 지역금융시스템은 지역에서 환원금융을 실현시키고, 지역혁신시스템의 구축에 기여하고, 또한 정보생산과 축적 기능을 통해 지역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축을 형성한다. 지역금융시스템의 개념 정립과 구축 방안이 최근 들어 새삼 요청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현실적 상황 때문이다.

첫째,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과 실물 경제와의 관련성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금융산업이 단기적 영업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금융기관의 개별적 효율성은 개선되고 있으나 금융산업 고유의 금융중개기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특히, 금융산업과 실물경제가 만나는 미세혈관적 접촉 지점이라 할 수 있는 지역차원에서는 금융과 실물경제의 장기적 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의 경제 구조는 개발연대를 통하여 중앙집권적 방식을 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운영 방식은 수도권 경제 집중과 지방 경제 침체라는 극심한 양극 구

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 21세기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지역을 새로운 경제 성장 축으로 삼는 지방분권형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이러한 측면에서 중요한 당위성을 가진다. 지역금융시스템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지역에서 환원금융이 실현되지 않는 가운데 지역경제의 내발적 성장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셋째, 지역금융시스템은 금융세계화의 위협성에 대한 내적 안전장치이다. 최근 한국의 금융시장은 세계금융시장으로 급속히 편입되어 가고 있는 것과 함께 한국 금융산업의 불안정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한국의 금융산업은 우선 세계금융시장으로의 편입속도를 높이고 국제적 표준(global standard)을 수용하여 극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지역금융시장의 기능을 제고시켜 한국 금융 산업의 중심성을 강화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한국이 추구한 금융구조조정 노력은 외향적 금융세계화를 일방적으로 추수하는 방식을 따랐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역금융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보완될 때 한국의 금융구조조정 노력은 비로소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지역금융시장의 구조와 지역금융기관의 목표시장

지역금융시장에서 지역금융기관은 지방은행을 비롯하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경기가 침체될 때 해당 지역에 리스크를 회피하는 자금운용 행태를 보이는 외국계 금융기관이나 전국형 금융기관에 비하여 지역금융기관은 해당 지역을 주된 영업구역으로 삼아 영업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의 장기적 발전에 보다 높은 관심을 보이는 특징을 나타낸다. 이러한 점에서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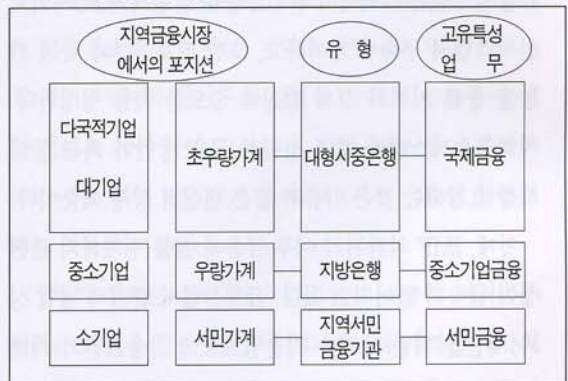
면 지역금융기관은 지역금융시장 내에서 관계금융 (relationship banking)과 지역밀착경영을 통해 외국계 금융기관이나 전국형 금융기관과는 다른 금융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외국자본이 경영권을 인수한 시중은행이 기업금융보다는 소매금융 중심으로 영업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단기적인 수익성 제고에 집착하여 신용위험이 비교적 낮은 소매금융 분야를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금융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외국계 시중은행 등 전국형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에 그대로 반영되어 장기적인 관점의 금융 지원이 필요한 지역금융시장의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전반적으로 지역금융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금융시장에서 지방은행은 물론이고 서민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방은행이 대거 퇴출되거나 피합병되어 지역금융시장에서 지방은행의 공급 선도기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지방은행뿐만 아니라 지역서민금융기관도 지역금융시장에서의 위상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2002년 지역대출금 시장에서의 서민금융기관의 점유율은 24.7%로 이는 외환위기 직후 1998년의 36.4%와 비교하여 크게 떨어진 수준이다. 그 결과 서민금융기관 또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다. 2002년 지역서민금융기관의 예대율(대출/예금)은 62.7%로 1998년의 67.1%와 비교할 때 역시 크게 떨어진 수준이다.

지역금융시스템은 지방은행뿐만 아니라 지역서민금융기관의 활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금융시장에서 지역환원금융을 실현하고 지역금융기관의 금융중개기능의 완결성을 보

장하기 위하여 지방은행과 지역서민금융기관은 상호간 시장 영역의 중복을 피하고 지역금융시장에서 협조적 분업관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금융시장에서 지역금융기관 상호간의 위상과 목표 시장을 분명하게 설정할 때 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방은행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과 동시에 지방은행은 지역의 우량 가계를 중심으로 가계 및 소비자 금융 업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방은행은 지역금융시장에서 금융 중추기능을 담당하고 지역금융의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한다. 한국 금융시장에서 지방은행의 위상 정립은 금융세계화에 대응한 국내금융산업의 장기적 구도 설정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으며, 수도권 경제력 집중 현상의 해체와 지방분권의 추진 방향과도 상호 조응하는 것이다.

지역금융시장의 포지션 및 고유특성업무



상호저축은행은 서민금융에 대한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여 영세기업과 서민가계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최근 상호저축은행은 신용공고에서 명칭을 변경(2002년 3월)하고 금융결제원에 가입(2001년 9월)함으로써 경영환경을 쇄신하고 있다. 그동안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와 관련된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으므로 신용도가 크게 저하되었으나 최근 지배구조의

개선 등 자체적인 노력을 통하여 공신력을 제고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상호금융의 경우 틈새시장(niche market)이라 할 수 있는 특정 지역과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특화하되 지역밀착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아래 그림은 지역금융시장에서 각각의 금융기관의 포지션 및 고유특성업무를 정리한 것이다.

3. 신용정보와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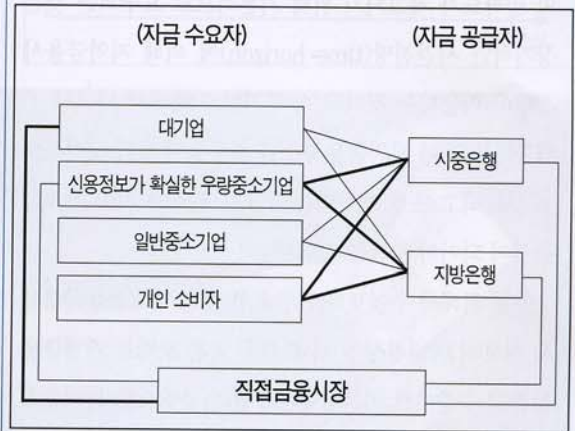
지역금융시스템에서 중심적인 문제의 하나는 중소기업금융이다. 지방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그동안 지방의 중소기업은 수도권 중심의 경제정책과 대기업 우선의 산업정책 때문에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지방 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지방 경제 활성화는 지방 중소기업 육성이 근본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지방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담보력의 부족과 불충분한 신용 정보로 인해 자금조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은행이 BIS 비율 준수 등의 이유로 신용 정보가 불확실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회피함에 따라 그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직접금융 등을 통해 자금조달방식의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간접금융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 은행의 이러한 운용방식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지방의 중소기업은 지방경제의 침체와 지방은행의 퇴출 등의 이유로 추가적인 금융 압박을 경험하고 있다.

아래 그림은 금융시장에서의 예금은행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자금 수급의 비대칭(mismatch) 현상을 보여주

고 있다. 그림에서 가는 실선은 종래의 자금 흐름을 보여주고, 굵은 실선은 외환 위기 이후 드러나고 있는 자금 흐름의 변화 현상을 표시한 것이다. 우선 대기업의 경우 종래의 은행차입에 의존하던 것을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향을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신용정보가 확실한 우량중소기업의 경우 주로 시중·지방은행을 통해서 차입하고 있으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그리고 서민형 금융기관을 위시한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대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가계대출을 크게 늘리고 있다.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수급 비대칭 현상



그림을 통해 분명한 것은 IMF 외환위기 이후 변화된 금융시장에서 신용정보가 불확실한 일반 중소기업만이 유일하게 굵은 실선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금융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그리고 기타 서민형 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가계대출을 증가시키고, 대기업과 신용정보가 확실한 우량 중소기업은 직접금융시장과 시중·지방은행을 통하여 자금 조달을 하게 되면서, 일반 중소기업은 자금 흐름의 변화에서 상대적으로 제외되어 방치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지역금융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현실적 상황이다.

4. 지역금융시스템과 헌신 비용의 분담

지역금융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아래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는 헌신비용(commitment cost)의 분담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다. 지역금융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금융과 실물경제와의 관련성을 높여 이를 통해 착지적 특성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지역공동체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것이다. 지역적 차원에서 금융의 공급선도 기능이 복원되어 금융과 실물경제의 밀착도가 제고되기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장기적인 시간전망(time horizon)에 의해 지역금융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림에서 나타난 지역 헌신비용이 지역금융시스템 전체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분담되고 또한 보상받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금융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개별금융기관의 수준에서 지역금융시스템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단위에서 지역금융시장에 대한 신용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역금융기관은 지역중소기업과 개별 대출선에 대한 장기적인 거래관계 및 연고 등을 활용하여 재무·비재무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여 왔다.

그리고 지역자치단체와 유관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금융시장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시장과 관련한 정보를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지역자치단체, 유관 공


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금융시장에서의 신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역금융정보시스템의 운용과 신용평가 기능을 전체 지역적 차원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금융시장에서 각 지역금융기관간의 업무 영역의 명확한 분업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각 지역금융기관의 지역차원에서의 금융네트워크의 강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방은행이 지역금융시장에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은행이 지역주민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참여 및 경영지도, 또는 지역금융기관간의 상호 업무를 협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지역금융시스템의 차원에서 고려할 만하다. 이를 통해 발휘되는 규모와 범위의 경제 효과는 지역금융기관의 지역에 대한 헌신비용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한 금융시장의 통합이라는 세계적인 경향을 주목할 때 지역금융기관간의 금융네트워크의 구축은 금융세계화에 내적 대응력을 갖추고 편입되는 기초적인 조건이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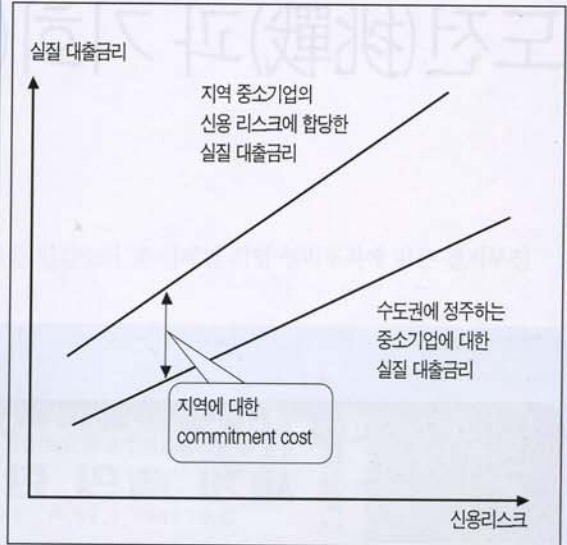
지역금융시스템 구축은 궁극적으로 지역수준에서 환원금융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을 지향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지속되면 지역경제의 공동화를 초래하고 이것은 지역금융시스템을 마비시키게 될 것이다. 지역금융기관이 지역혁신시스템의 중요한 혁신주체(innovator)의 역할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 지역에서 내발적 경제체제가 구축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적 수준에서 환원금융의 달성이 필수적이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혁신시스템의 구축도 결국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현상을 방지한다면 그 어떠한 시도도 실효성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지역자금 역외유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도 지역에서 조성된 공공자금이 지방은행 등 지역금융기관에 전담 예치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역에서 조성된 공공자금 가운데 많은 부분이 시중은행과 전국형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수도권이 금융의 중추기능을 전담하여 자원 배분을 결정한 이전 관행의 단순한 답습에 불과한 것이다. 지역금융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금융의 공급선도 기능이 요구되는 한 지역에서 조성된 공공자금이 지역의 기업이나 경제를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지역자금의 지역 환원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지역 서민금융기관의 대은행거래가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지역의 공공기관과 지역금융기관 상호간의 밀접한 네트워크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 지방분권 실현을 선결과제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헌신비용





세계 속의 한국 : 도전(挑戰)과 기회(機會)



사공 일 |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편집자 주 : 지난 5월 20일(목) 18:00~20:00까지 대구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제169차 월례세미나」의 발표 내용을 요약·정리 하였다.

SEMINAR

I. 한국경제의 현황 및 단기전망

- 세계경제 여건변화와 전망

- 미국경제 현황 및 경제정책변화
- 일본경제의 회복세 시현
- 중국경제의 연착륙(soft-landing) 여부
- 국제유가 상승원인과 전망

- 한국경제는 사상 유래 없는 수출호조에 불구하고 저조한 민간소비 및 침체된 기업 설비투자에 따른 경기부진

- 민간소비 및 기업설비투자 침체요인 및 개선전망

- 2004년도 경기전망

II. 한국경제의 중·장기 과제

- 국제경제 질서변화

- 다자주의(multilater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의 혼재
- 동아시아지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추세와 통화협력 현황과 전망

- 세계경제 환경변화의 두 가지 큰 흐름

- 세계화(globalization)의 가속화와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시대 도래
- 세계화 추세 가속화의 특징

- ① 자본, 기술, 경영기법, 판매망 등을 갖춘 기업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이에 따른 일자리 이동
- ② 기업 간 무한경쟁

- 지식기반경제시대 도래와 한국의 경쟁우위

- 중국경제의 급부상과 한국경제

- 도전적인 측면과 기회적 측면의 중국경제발전

III. 새로운 국제질서와 세계경제여건 변화에의 대응


- "일자리" 유치 및 확보를 위한 국가 간, 지역 간 경쟁 가속 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여건조성에 국정우선순위 두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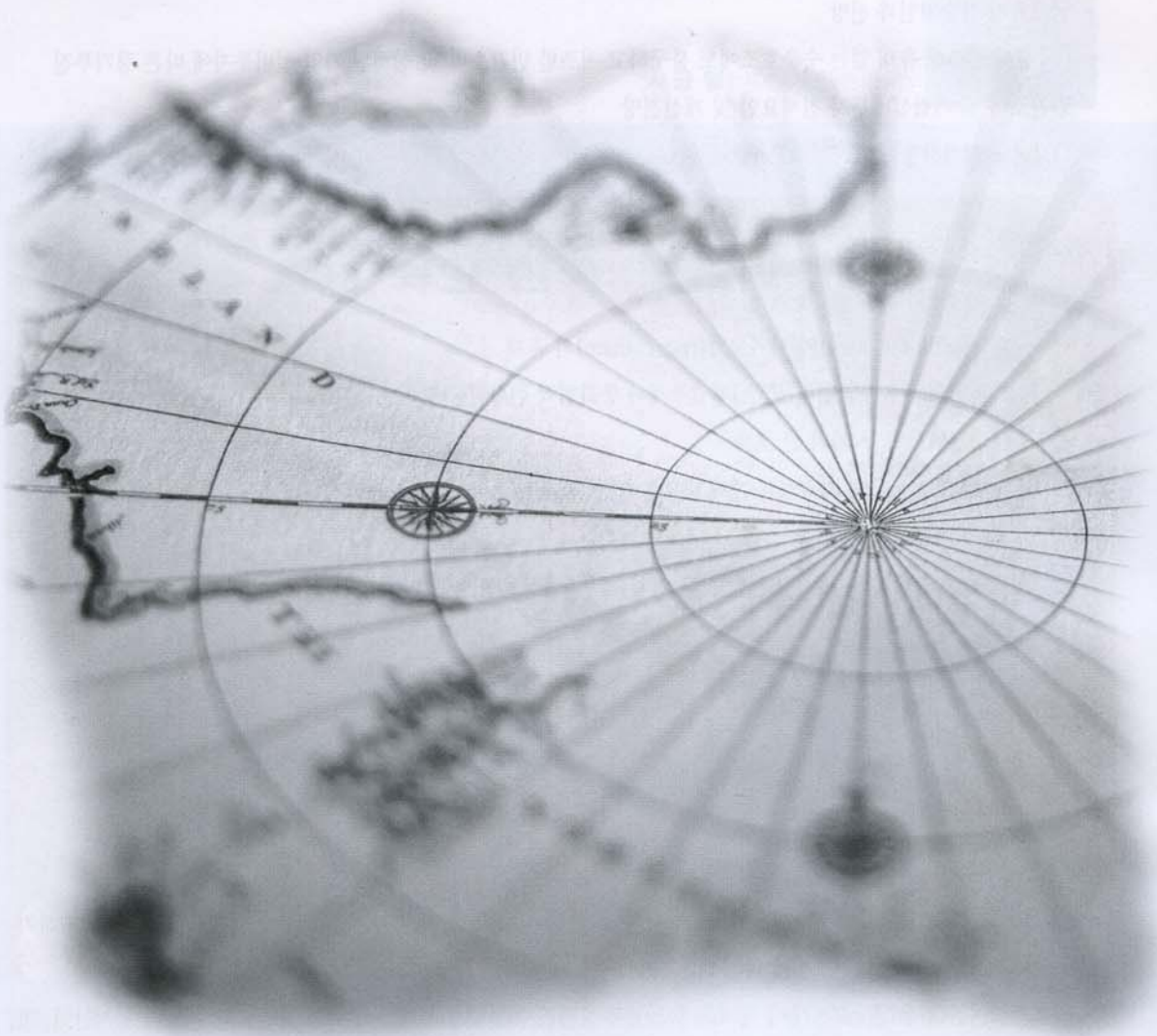
-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 확충 등 hardware적 측면의 여건조성도 중요하나, 국가안보의 확보와 정치안정, 법치(法治)와 각종 제도와 법률의 투명한 운용, 국제수준의 정부규제 및 조세제도의 운영, 대립적 노사관계 개선 등 software측면의 여건조성 더욱 중요



SEMINAR

제 169 차 월례 세미나

- 다자주의에 적극 참여하되, 지역 간 협력체제 구축에도 힘써야 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인 신흥공업국으로서 우리나라는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인 leadership 발휘 가능
- 전반적인 교육개혁을 통해 창의력과 "남과 더불어 사는 지혜"의 함양과 함께 국제적 안목을 가진 인력양성 시급 





안세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

대구·경북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터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침체된 지역경제의 발전이라는 중책을 맡으신 소감과 본원 회원들을 위해서 본부장님의 약력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대구경북 지역경제가 최근 다소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 밀라노프로젝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 추진 등으로 지역경제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모색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대구경북본부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재임기간 동안 지역경제가 침체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저는 1974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은행에 입행한 후 조사부 통화금융과장, 정책기획국 정책분석팀장, 금융경제연구원 부원장 등 주로 통화정책 및 경제조사연구 분야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1988년에는 미국 Texas A&M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FRB San Francisco 객원연구원으로 근무한 경험도 있습니다.

☞ 지난 2년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와 본원이 공동으로 『대구경북지역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왔습니다. 본부장님의 앞으로 계획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한국은행 지역본부는 매년 지역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경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본부는 전

문적인 연구역량을 갖춘 산학경영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한층 심도 높은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역의 각종 현안을 전문가그룹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가운데 해결책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동 심포지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혁신시스템의 구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중 핵심 사안인 지역혁신역량 구축 방안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논의를 함으로써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9월경 개최 예정으로 현재 주제선정 등 제반 준비작업이 진행 중인데 지역사회의 폭넓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본부장님께서 구상하신 방안이 있으시다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대구경북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섬유 등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첨단산업의 육성 등을 통해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2단계 밀라노프로젝트, 대구경북과학기술원(DKIST) 설립, 한방바이오밸리 조성 등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지역기업의 투자의욕을 북돋울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보다 확대하는 한편 지역경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상황이 통화신용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대구경북본부의 주요 정책수단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 금융기관에 낮은 금리(현재 연2.5%)로 자금을 제공하는 '총액한도대출자금(C2자금)'이 있습니다. 우리 본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통상적인



자금지원과 더불어 유망 중소기업, 신기술개발기업, 첨단산업단지 입주 업체 등에 자금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구조 고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6월 23일부터는 우선지원자금의 업체별 지원한도를 종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하고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중소기업공동상표 참여기업 및 성서 제4차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7개 항목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새롭게 추가하여 지역내 성장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 고도화를 유도하고 내수부진에 따른 자금애로의 완화를 도모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역경제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여 시의성 있는 지역현안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학계, 관계, 업계, 연구소 및 금융계 인사들이 모여 허심탄회하게 지역현안을 논의하는 기회도 자주 가질 생각입니다.



아울러 지난 6월 16일에 금융통화운영위원들이 대구경북지역을 방문하여 지역 업계의 동향을 파악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경제의 실상을 통화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의 고위 임직원을 초청하여 지역경제 인사들과의 대화창구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 향후 국가경제나 지역경제의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본부장님의 전망은 어떠하신지요.

금년도 우리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에 힘입어 수출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하반기 중에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도 다소 살아날 것으로 보여 연간 5%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가는 고유가의 영향이 점차 시차를 두고 파급됨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공급능력의 여유, 가격경쟁 심화 등으로 근원인플레이션율은 대체로 목표범위내(2.5~3.5%)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와 달리 국제유가의 불안, 미국의 정책금리 대폭 인상,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울러 우리경제가 노동시장의 경직성, 고임금 및 과도한 사교육비 등으로 고비용·저효율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인도 등 BRICs 국가가 신흥경제 강국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외부로부터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실한 노력으로 경제위기 등 난국을 극복해온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감안할 때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간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사관계와 교육분야의 개혁, 고도기술 및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개편, 금융시스템의 선진화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구경북지역 경제는 최근 생산활동면에서는 섬유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전

자통신, 철강, 자동차부품 등의 수출호조로 전년보다는 다소 호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내수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여 체감경기는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호조가 내수회복으로 연결되면서 하반기에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지역 경제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산업구조상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이 병존하고 있으며 수출의존도가 높아 대외환경 변화에 민감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방화의 영향을 어느 지역보다 크게 받을 수 밖에 없어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지역경제의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지역경제는 내수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중소 수출기업은 후발국과의 경쟁격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FTA 체결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등을 통해 산업구조 개편에 성공한다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지난해 한국은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년부터는 연간 물가목표 대신 3년 단위의 중기 물가목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중기 물가목표제의 도입 의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은 1998년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이후 매년 물가목표를 설정해 왔으나 지난해 7차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3년 단위의 중기 물가목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통화정책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있는 데다 정책효과가 과급되는 데에는 불확실성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간 물가목표 설정방식은 통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책의 과급시차와 금융·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물가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대응 여부 및

강도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보다 유연하고 선제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운영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중기 물가목표제 도입의 의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기 물가목표제의 효율적인 운용에는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예측능력, 통화정책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물가 예측력과 통화정책효과 분석 능력을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통화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유관기관들의 공동노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점에서 저희 산학경영기술연구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원의 발전을 위한 본부장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대구경북지역은 발전을 위한 기본요소가 구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이 공존하고 있으며 많은 대학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과 학계의 협력관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네트워크 확립이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요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산학경영기술연구원이 지난 14년 동안 지역 업계 및 학계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 오신 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학경영기술연구원이 첨단 기술정보와 최신 경영기법 등을 지역 산업계에 적시에 제공하여 주시고 아울러 전문가그룹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제시하는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도 산학경영기술연구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대 답 : 최만기 본원 원장(계명대학교 경영대학장)

일 시 : 2004년 6월 24일(목) 10:00

장 소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본부장실

연락처 : 053)429-0301

<http://www.bok.or.kr/daegu/index.jsp>



제169차 월례세미나 개최

지난 5월 20일(목) 18:00~20:00까지 대구그랜드호텔에서 「세계 속의 한국 :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제169차 월례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사공 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제144차 이토회 개최

지난 6월 12일(토) 오후 3시 앞산에서 제144차 이토회를 가졌다.

산학리뷰, 웹진으로 전환!!!

정보교류의 인프라와 형태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전달의 적시성 제고, 쌍방 정보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산학리뷰를 인쇄물 형태에서 웹진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2004년 8월까지의 기존 인쇄물로 발행하며 9월부터는 완전히 웹진으로 발행할 예정이므로, 현재 산학리뷰를 구독하시는 분께서 웹진 형태의 산학리뷰도 계속 구독하시려면 본원으로 반드시 이메일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홈페이지 및 웹진을 제작 중에 있으니 좋은 의견 있으시면 홈페이지(www.uri.or.kr) 게시판 또는 이메일(uri@uri.or.kr) 등을 통해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권상장

권상장 한국선물포럼회장(계명대 경제통상학과 교수)은 6월 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2004년도 선물 심포지엄 개최



■ 김규택

김규택 대구시 수성구청장은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한국리더십센터 영남교육원 주관으로 경남 산청 삼성연구소에서 열리는 공직자 의식개혁 연수 과정에 참석



■ 김동구

김동구 (주)금복주 대표이사는 6월 7일 대구·경북 169개 고등학교에 2/4분기 장학금 5천만원을 전달
 • 16일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에 난치병 어린이 돕기 성금으로 각 2천만원씩 모두 4천만원을 기탁



■ 문신자

문신자 경북과학대학 사회교육원장은 6월 15일 대구 에어포트호텔에서 정운찬 서울대 총장을 초청해 정치아카데미(CEO과정) 강연회를 가짐



■ 민병오

민병오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장은 국제섬유신문사 주관 「제11회 삼우당 대한민국 섬유패션상」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 6월 2일 섬유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



■ 박삼규

박삼규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은 5월 16일 ~ 21일 북경에서 개최된 제17차 ICCA(국제상사중재협의회)에 한국 대표단 13명과 함께 참석, 우리나라 중재제도를 홍보하고 중국을 비롯한

각국 중재기관장측과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



회원동정

- 6월 11일 경주에서 국제상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중재학술대회에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집중토의

- 25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한국중재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건설중재학술발표대회에서 건설분야 중재활성화 종합발표회를 가짐



■ 손수석

손수석 경일대학교 무역전시컨벤션학과 교수는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오사카 본부의 주선으로 6월 20일부터 5박 6일간 일본테마 연수단을 이끌고 마쓰시다전기(松下電氣) 그룹 탐방에 이어 오사카대학 경제학부 방문



■ 안세일

안세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은 6월 7일 한국염색기술연구소를 방문, 섬유산업 발전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눔



■ 이병찬

이병찬 계명대학교 교수(산업경영 연구소 소장)는 5월 12일~13일 계명대학교 의양관에서 중국천진시 소재 남개대학과의 제4회 한중 경영 및 경제 국제학술세미나를 「한중 기업의 상생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

- 20일 계명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식에서 근속 30년 공로 표창과 기념 메달 수상



■ 이수광

이수광 한국해양청소년연맹 대구연맹장(독도 종합학술조사단장)은 6월 1일 서울대 자연과학대 해양연구소 객원 연구위원으로 위촉

- 동아 꿈나무 재단 후원으로 6월 21일부터 5일간 독도 종합학술조사 실시



■ 이영수

이영수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최근 고급 e비즈니스 인력을 양성하는 산학협동 e비즈니스 대학원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 산업자원부로부터 2년간에 걸쳐 매년 1억5천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됨



■ 이종준

이종준 계명문화대학 평생교육원장은 평생교육원에서 전통요리와 생활차를 종강, 수강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로 6월 17일 도서관 1층에서 전시회 개최

- 19일 제2기 원예치료사 과정 수료식을 비롯하여 생활도자기반, 야생초분재반, 아동미술 실기지도사반, 가베지도사반, 독서지도사반 외 10개 과정 수료식을 가짐



■ 이현희

이현희 대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6월 2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심의·의결하는 임기 2년의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위원 위촉장을 받음



■ 조만현

조만현 동우씨엠(주) 대표이사는 대경대학교와 양 기관의 지식과 기술 등의 정보를 상호교환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사)대구시아파

트연합회 연수원 교수로 위촉

- 수성하이츠소피몰, 침산건영하이츠 등 관리 단지에 대해서 자위소방대 외 해당소방서 및 구청 민방위계들과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화재에 대한 신속한 조치방법을 교육하고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사전대비책을 강구



■ 조봉진

조봉진 한국창업보육협회장(계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은 5월 29일 부산 BEXCO에서 개최된 중소기업청 주관 채용박람회 tape cutting에 참석, 창업자를 위한 창업마케팅 특

강



회원동정

• 6월 12일 부산 동명정보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마케팅관리학회 하계학술논문발표회에서 좌장으로 역할



■ 조재룡

조재룡 (주)한국중소기업컨설팅 대표이사는 5월 28일 포항테크노엔젤클럽 투자마트 및 정기총회 참석

• 6월 1일 문경대학 창업강좌 실시

• 8일 현대내장(주) ISO9001 품질인증지도 개시교육 실시



■ 최성해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은 6월 3일 최세호 철도청장과 함께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도부터 철도경영학과를 신설하기로 약속

■ 황대현

황대현 대구시 달서구청장(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상임고문)은 한국 기초자치단체 대표로 5월 7, 8일 이틀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제4차 포르투알레그레 지방정부포럼」에 참석

• 보훈가족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공로로 호국보훈의 달 포상 대상자로 선정, 6월 21일 국가보훈처로부터 감사패를 받음



■ 노희찬

노희찬 본원 고문(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6월 3일부터 11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되는 제35차 국제상업회의소(ICC) 총회에 참가

■ 이상천

이상천 본원 고문(영남대학교 총장)은 2006년 7월 열리는 제38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IChO)를 유치

•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항공대(총장 류라트 A 이크라모프)와 6월 4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 공동연구와 학술지 및 출판물 교환, 교직원·학생 교류 등을 약속



■ 최용호

최용호 본원 명예원장(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은 5월 3일 (사) 경북대공학설계연구원 이사회 참석

• 10일 대구상의 100년사 편찬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 14일 ~ 15일 중소기업지원자금평가·사전조정위원회의 워크숍 참석(춘천)

• 18일 대성산업 대구사옥 준공식 참석

• 31일 섬유지식산업연구회의 회장에 재선



■ 구정모

구정모 본원 부이사장(대구백화점 대표이사)은 6월 1일 대백프라자 10층 프라임홀에서 기아체험 24시 스폰서북 및 사랑의 빵 저금통 모금액 1천570만원을 월드비전 대구·

경북지부 김순이 지부장에게 전달

축하드립니다

• 정 해 왕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장남 결혼 : 2004년 6월 17일(목) 저녁 6시 센트럴시티 5층 크리스탈홀

삼가조의를 표합니다

• 유 영 진 경북과학대학 호텔관광교육원장 모친상 : 2004년 5월 27일

• 강 명 구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부친상 : 2004년 6월 20일



단행본 및 연구보고서

-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 2003", 2004. 4
- 삼성경제연구소, "CEO, 성공과 실패의 조건", 2004. 5. 27
- 삼성경제연구소, "한미관계의 현안과 과제", 2004. 6. 2
- 한국금융연구원 ·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한국경제의 분석", 2004. 4

정기간행물

- 경남발전연구원, "경남발전", 2004. 5
- 경북테크노파크, "KTP헤드라인", 2004. 3 · 4
-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달서", 2004. 6
- 대구상공회의소, "대구 · 경북경제동향", 2004. 4
- 대구상공회의소, "대구상의", 2004. 5 · 6
- 대구은행, "향토와 문화30 - 우리 고장의 랜드마크를 찾아서", 2004. 4. 30
- 산학연종합센터, "산학정21", 2004. 6. 5
-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OECD Focus", 2004. 5
- 좋은 이웃집, "경제풍월", 2004. 6
- 증권거래소, "주식", 2004. 5
-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동향 분석과 전망", 2004. 봄
- 한국무역협회, "무역", 2004. 6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기협 기술과 경영", 2004. 6
- 한국산업정보센터, "레이저기술", 2004. 6
- 한국산학협동연구원, "산학협동 인포", 2004. 6
- 한국수출입은행, "수은 해외경제", 2004. 6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대구 · 경북지역 경제동향", 2004. 4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04. 4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04. 5
- 한국증권업협회, "증권", 2004. 여름호
- 한국철도시설공단, "철길로 미래로", 2004. 창간호
- (주)푸드웰, "가실", 2004. 5 · 6
- (주)효성, "토프론 섬유", 2004. 5 · 6

연구원 소개 및 회원가입 안내

■ 연혁 및 현황

1990년 6월 지역의 학계 교수, 기업체 경영자, 기관 단체장이 산학협동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일조하자는 순수한 취지로 산업자원부의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창립하였으며, 현재 44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이사장 : 정성진 국민대학교 교수
- 원 장 : 최만기 계명대학교 교수

■ 주요사업

- 산학협동 세미나 개최
- 산업시찰 실시
- 산학리뷰 발간
- 조사분석, 기술개발 연구
- 각종 개발계획 수립 등 연구용역 수행
- 경영자 및 임직원의 교육훈련
- 회원친선 교류사업

■ 회원가입 자격 및 회비

- 학계회원 : 국내의 학계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입회비 5만원, 연회비 7만원)
- 업계회원 : 기업체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연회비 80만원)
- 유관기관회원 : 금융기관,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 (연회비 80만원)
- 유관개인회원 :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임원으로서 개인자격(입회비 5만원, 연회비 15만원)
- 영구회원 : 회비 일시납부 회원 (개인 100만원, 기관 1000만원)

■ 연구원 거래은행 계좌

- 대구은행 : 018 - 04 - 304943 - 001
- 예 금 주 : (사)산학경영기술연구원

- 본 연구원에 납부 또는 지원하시는 회비 및 출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서 연말정산시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번호 : 502-82-12124).

■ 원고 및 광고게재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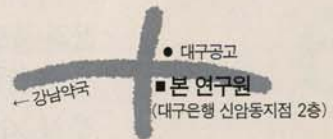
매월 2,500여 부를 제작·배포하는 본 산학리뷰지는 회원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적극적인 원고 기고 및 광고게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연구원 사무국 T.(053)959-2861~2)

■ 2004년 6월호 (통권 158호)

- 간 별 : 월간
- 등 록 번 호 : 대구라01089
- 등 록 일 : 1998년 6월 2일
- 발 행 소 : (사)산학경영기술연구원
- 발 행 일 : 2004년 6월 30일
- 발 행 인 : 정성진 (국민대학교 교수)
- 편집위원장 : 정인상 (경북대학교 교수)
한성덕 (대구대학교 교수)
- 편집위원 : 김능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구경북지원장)
김영재 (동국대학교 교수)
김용준 (영남이공대학 교수)
박규진 ((주)애드밸리 대표이사)
박진향 ((주)멀티애드메이저 대표이사)
이동형 (영남법무법인 변호사)
황남성 (영남이공대학 교수)
조정일 · 이재현 · 최영애 (상임연구원)
- 기획·편집 : 멀티애드(053-751-6562)



UNIVERSITY-INDUSTRY RESEARCH INSTITUTE

701-814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3동 164-1번지
TEL. (053)959-2861~2 FAX. (053)959-2860
http://www.uri.or.kr
e-mail : uri@uri.or.kr

1년 365일

오직 지역만 생각합니다.



꿈과 풍요로움을 지역과 함께 해 온 대구은행은
한결같은 마음과 변함없는 정성으로
항상 지역만 생각하는 은행이 되겠습니다.